

코리안 리거 프리시즌 '골 잔치'

# 2골 이강인 "이래도 날 안쓸거냐"

원맨쇼 펼치며 감독에 무력시위  
친선경기서 동점골·쐐기골  
발렌시아 3-1 승리 이끌어



발렌시아 이강인이 6일 스페인 2부 리그 카르타헤나를 상대로 친선경기에 선발로 나서 멀티골을 뽑아내며 발렌시아를 3-1 승리로 이끌었다. /연합뉴스

'한국 축구의 미래' 이강인(19·발렌시아)이 '멀티골'로 프리시즌을 마치고 발렌시아에서 다시 맛을 2020-2021시즌 기대감을 높였다.

이강인은 6일 스페인 2부 리그 카르타헤나를 상대로 친선경기 선발로 나서 멀티골을 뽑아내며 발렌시아를 3-1 승리로 이끌었다.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선 이강인은 0-1로 끌려가던 후반 24분 상대 골키퍼 실수를 틈타 동점골을 뽑았다.

골키퍼의 볼 간수 실수로 공을 흘려보내자 득달같이 달려든 이강인이 넘어지며 슈팅,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강인의 득점으로 기세를 올린 발렌시아는 파상공세를 펼치더니 제이손의 역전골로 2-1을 만들었다.

승리에 쐐기를 박은 것도 이강인이었다. 이강인은 후반 35분 골지역 왼쪽에서 수비진에 둘러싸인 가운데 왼발 타닝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상대에게 손 쓸 여유를 주지 않는 기민한 움직임과 짧은 시간 안에 슈팅 궤적을 찾아낸 골 본능이 빛났다. '원맨쇼'를 펼친 이강인은 후반 41분 교체됐다.

이날 카르타헤나전은 발렌시아가 2020-2021시즌 라리가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치른 마지막 프리시즌 경기였다.

이강인은 지난 시즌 발렌시아에서 많은 기회를 얻지 못했다. 정규리그 17경기를 포함해 총 24경기

에 출전, 2골에 그쳤다. 대부분이 교체 출전이었다.

새 시즌을 앞두고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얻기 위해 다른 팀으로 이적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이강인은 결국 발렌시아에 남기로 했다.

구단 측이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약속하고, 하비에르 그라시아 신임 감독도 자신에게 신임을 보낸 것이 잔류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라시아 감독은 실제로 프리시즌 경기에 이강인을 중용했다.

이강인은 카스테욘과의 프리시즌 첫 경기에서는 가벼운 부상으로 전반전 교체됐으나 이어진 비야레알전에서 후반 교체 투입돼 팀의 2-1 승리에 힘을 보태더니 레반테와의 시즌 3번째 친선경기(0-0 무)에서는 '주장 완장'을 차고 선발 출전해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

그리고 이날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멀티골

을 폭발하며 새 시즌 팀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가치가 있음을 증명했다. 구단의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커 보인다.

경기 뒤 발렌시아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강인의 눈부신 활약을 소개한 기사가 몇 줄이었던 하이라이트 영상과 함께 게재됐다.

구단은 "첫 번째 골은 이강인이 얼마나 끈질긴 선수인지를 보여줬다"면서 "이강인이 원발로 넣은 3번째 골은 발렌시아가 만든 최고의 공격 장면이었다"고 평가했다.

'발전'보다는 '정체'에 가까운 2019-2020시즌을 보낸 이강인에게 다가오는 시즌은 유럽 성인 무대 안착 여부를 가를 중요한 시험대다.

발렌시아는 오는 14일 홈인 메스타야 경기장에서 레반테와 2020-2021시즌 라리가 개막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 '주장' 손흥민 PK골...4경기 4골

토틀넘은 왓퍼드에 1-2 패  
14일 에버턴 상대 시즌 개막전

주장 완장을 차고 프리시즌 마지막 평가전에 나선 '손세이셔널' 손흥민(토틀넘)이 페널티킥 득점포를 가동하고 경기 막판 실점을 막는 장거리 전격 질주까지 펼쳤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다.

토틀넘은 6일(한국시간) 영국 왓퍼드의 버커리지 로드에서 끝난 왓퍼드(2부리그)와 평가전에서 0-2로 끌려가던 후반 34분 손흥민의 페널티킥 추격골이 터졌지만 추가 득점에 실패하며 1-2

로 패했다.

이로써 토틀넘은 오는 12일 개막하는 2020-2021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 앞서 치른 4차례 평가전을 3승 1패로 마무리했다.

손흥민은 4차례 평가전(입스위치 타운·레딩·버밍엄·왓퍼드)에 모두 출전해 3경기(입스위치 타운전 2골·레딩전 1골·왓퍼드전 1골)에서 4골을 쏟아내는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개막전을 앞두고 제대로 예열을 마쳤다.

토틀넘은 한국시간으로 14일 오전 0시 30분 런던의 토틀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에버턴을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새 시즌 개막전을 벌인다. /연합뉴스



손흥민의 경기 모습. <토틀넘 트위터 캡처>

# 메시, 결국 바르사 잔류...팀 훈련 합류

FC바르셀로나(스페인)와 결별을 준비하려던 결국 잔류를 결정한 리오넬 메시(33·아르헨티나)가 7일부터 팀훈련에 합류한다.

스페인 일간지 마르카는 6일(한국시간) '메시의 칼린더'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바르셀로나 잔류를 선택한 메시의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일정'을 소개했다.

메시는 지난달 26일 구단에 팩스로 이적 요청서를 보냈다. 20년 동안 몸담았던 바르셀로나를 떠나겠다는 메시의 충격 선언에 전 세계 축구 팬들도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메시의 차기 행선지를 놓고 도박사들의 설왕설래도 이어졌다.

하지만 내년 바르셀로나와 계약이 만료되는 메시는 자신에게 붙은 7억 유로(약 9860억원)의 엄청난 이적료를 놓고 구단과 갈등을 겪었다.

구단과 계약서에는 시즌 종료 시점인 올해 6월 10일까지 메시가 계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19-2020시즌이 늦게 끝나면서 구단은 이미 메시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으며 이적료를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메시는 법적 싸움을 포기하고 팀에 남기로 했다.

마르카에 따르면 메시의 첫 번째 일정은 팀훈련

복귀다. 메시는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위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은 뒤 현지시간 7일부터 팀 훈련에 합류할 예정이다.

바르셀로나는 한국시간으로 13일 스페인 3부리그 그타라고나와 첫 프리시즌 매치에 나서고, 17일에는 지로나FC와 두 번째 프리시즌 매치를 펼친다. 메시는 현지시간 27일(경기 시간 미정) 예정된 비야레알과 2020-2021 스페인 프리메리가 3라운드 경기부터 팬들과 공식적으로 만날 예정이다.

마르카에 따르면 팬들이 주목해야 할 날짜는 내년 6월 30일이다. 메시와 바르셀로나의 계약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날짜가 바로 2021년 6월 30일이다. 마르카는 "메시는 내년 4월까지 바르셀로나의 새로운 회장이 뽑히면 계약 갱신 여부를 놓고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 윌리엄스, 7번째 US오픈 우승 향해 순항

스티븐스 꺾고 16강 진출  
남자 랭킹 94위 포스피실  
11위 아궁 제압 이번 연출



세리나 윌리엄스가 6일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 아서 애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여자 단식 3회전에서 스티븐스를 상대로 강력한 서브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세리나 윌리엄스(8위)가 슬론 스티븐스(39위·미국)를 제압하고 6년만의 US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5340만 2000달러) 정상 탈환을 향해 순항했다.

윌리엄스는 6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 아서 애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3회전(32강)에서 스티븐스를 2-1(2-6 6-2 6-2)로 제압했다.

이로써 윌리엄스는 US오픈 여자 단식 최다 승리 기록을 104승으로 늘렸다.

또 자신이 출전한 US오픈에서 20차례 연속 4회전(16강) 진출 행진을 이어갔다. 윌리엄스는 메이저 대회 데뷔 해인 1998년 대회에서만 3회전 탈락했을 뿐이다.

윌리엄스가 출전하지 않은 2017년 대회에서 자신의 유일한 메이저 대회 우승을 이룬 스티븐스는 3년만의 정상 도전에 실패했다.

윌리엄스의 4회전(16강) 상대는 3회전에서 어떤 다니시모바(28위·미국)를 2-0(6-3 6-1)로 제압한 마리아 사카리(22위·그리스)다.

1995년생으로 윌리엄스보다 14살 어린 사카리는 2017년과 지난해 대회에서 두 차례 3회전에 오른 게 최고 성적이다.

메이저 대회 전체를 놓고 보면 올 초 호주오픈에서 4회전에 진출, 개인 최고 성적을 냈다.

남자 단식 3회전에서는 도미니크 팀(3위·오스트리아)이 마린 칠리치(38위·크로아티아)를 3-1(6-2 6-3 6-6 6-3)로 꺾고 첫 메이저 대회 정상 도전을 이어갔다.

2011년 프로로 데뷔한 팀은 2018년, 2019년 프

랑스오픈과 올해 호주오픈에서 메이저 대회 3년 연속 결승에 올랐으나 한 번도 트로피에 입 맞추진 못했다.

배식 포스피실(94위·캐나다)은 8번 시드를 받은 로베르토 바우티스타 아궁(11위·스페인)을 3-2(7-5 2-6 4-6 6-3 6-2)로 꺾고 4회전에 진출하는 이번을 연출했다.

포스피실은 아직 투어 우승이 없다. 메이저 대회에서는 2014년, 2015년 호주 오픈에서 두 차례 3회전까지 오른 게 전부다.

2018년 남자프로테니스(ATP) 김천 챌린저 등 국내에서 열린 국제 대회에 몇 차례 출전해 국내 팬들에게는 낯이 익은 선수다. /연합뉴스

# 전남체육회, 청소년 스포츠한마당 공모 5개 종목 선정



지난해 열린 전남도교육감배 학교스포츠 클럽 행사.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도체육회는 6일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공모 사업에서 축구·배드민턴·농구·탁구·볼링 등 모두 5개 종목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청소년스포츠한마당은 기존 학교스포츠클럽대회와 달리 소속과 무관하게 학생 선수와 일반학생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청소년 스포츠 교류의 장이다.

대회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뉘어 치러지며 한 종목당 2900만원의 예산을 대한체육회에서 지원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도체육회는 올해 신규로 공모한 5개의 사·도 공모가 가장 많은 5개의 종목에 선정됐다. 전국 11개 사·도가 선정된 본 사업에서도 대전(6개)에 이어 대구와 함께 두 번째로 많은 종목을 개최하게 됐다.

김재무 도체육회 회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을 통해 침체됐던 청소년 체육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LOTTE CINEMA | 중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테넷
- 2관 테넷, 반교: 디텐션
- 3관 극장판 방구는 못말려, 오케이 미담, 고스트 오브 워
- 4관 외 문화
- 5관 테넷
- 6관 외 문화
- 9관 외 문화
- 7관 씨네카를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 8관 씨네카를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고스트 오브 워, 반교: 디텐션

GAC기획전시  
경계의공간  
2020. 9.1.(화) ~ 11.1.(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운드 드라마  
알폰스 도데의 '별'  
2020. 9.24.(목) AM 11:00, PM 3: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11시 음악산책  
정재형의 프롬나드  
2020. 9. 29.(화) AM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